

---

#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 意識에 관한 序說的 研究

高 性 俊

## 目 次

- 一. 序
  - 1. 問題의 提起
  - 2. 研究目的
- 二. 研究方法 及 調査對象者의 屬性
  - 1. 研究方法
  - 2. 調査對象者의 屬性
- 三. 在日同胞社會의 統一運動
  - 1. 在日同胞社會의 南과 北
  - 2. 在日同胞社會의 初期 統一運動
  - 3. 統一에 관한 具體的 活動
- 四.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分析
  - 1. 韓半島 統一에 對한 視角
  - 2. 北韓의 戰爭挑発危險에 對한 認識
  - 3. 北韓共產主義社會觀
  - 4. 日本을 보는 눈
- 五. 結 論

## 一. 序

## 1. 問題의 提起

日本帝國主義下의 悲運의 歷史속에서 經濟的 困難, 亡命, 強制徵用등을 연유로 旧韓末부터 우리 韓民族은 日本으로 대거 移住하기 시작하여 日本内の 韓民族社會를 이룩하였고, 오늘날 그 수는 70萬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들중 해방후에 태어난 이른바 2, 3世의 數는 차차 늘어나서 在日同胞數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在日同胞는 이미 4世까지 있어 祖國을 모르고 韓國말 조차 모르는 世代가 在日同胞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이들 대부분은 아직도 日本帝國主義治下에 있는 것처럼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不安한 生活과 바쁜 生活은 民族愛나 祖國統一에 대한 無關心을 더 한층하여 주고 있다.

일찍이 北傀는 日本과 日本内の 在日同胞社會를 對南革命의 基地로 活用할 목적으로 在日朝總聯을 육성강화하였고, 8.15 직후 混亂과 흥분의 틈을 利用한 이들 共產勢力의 工作은 在日同胞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조총련과 關係를 가지게끔 하였다. 그리하여 一部 在日同胞들은 조총련의 끈질긴 허위선전에 속아 大韓民國에 反對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이들 조총련의 모든 政治活動이나 工作은 平和統一이란 미명아래 行하여져 韓國의 當面課題로서의 平和統一과 混亂을 일으키는 심리적 상황에서 生活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우기 日本은 經濟富強에 편승한 社會主義的 容共主義的 傾向을 가지고 있어, 北傀에 대한 애매한 태도 내지 友好的인 傾向마저 보이고 있음을 認知할 때 70萬이 넘는 在日同胞가 日本에 살고 있고, 또 北傀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對策은 國內問題 못지않게 절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日本은 한국과 政治적, 經濟적, 社會적, 歷史적으로 密接한 關係에 있으면서 地理的으로 最隣接國家로서 日本을 통한 韓國의 對外이미지 부각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朝總聯의 活動은 韓國의 對日政策, 나아가서 自由世界와의 協力體制에도 크나큰 障礙要素로 대두되며 特別히 日本의 한반도정책에 더욱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現狀속에서 우리는 在日同胞들에게 비록 他國에서 生活하지마는 韓民族의 一員으로써 올바른 民族觀과 祖國觀을 심어주고, 그들 역시 韓國의 當面課題로서의 平和統一을 推進하는 주체로서의, 國家安全保障의 一員으로서의 役割을 認識시키고, 나아가서는 韓國이 주도하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國際的 與論을 造成하는데 一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對策이 시급하다 하겠다.

## 2. 研究目的

이러한 立場에서 本稿는 日本에 거주하고 있는 在日同胞中 特히 在日濟州同胞가 韓國과 北傀의 影響이 交叉하는 가운데서 祖國의 統一安保問題에 關한한 어떤意識을 가졌는지를 把握하고 이를 토대로 在日濟州同胞들에게 進진한 統一觀과 國家安保意識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와같은 目的下에서 이 研究는

첫째, 在日同胞社會에서의 統一運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民團과 朝總聯, 兩團體의 活動을 中心으로 論及한 다음,

둘째,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에 關하여 社會調查方法을 통한 實證의 分析을 하려는 것이다.

## 二. 研究方法과 調查對象者의 屬性

### 1. 研究方法

研究方法으로는 文獻研究와 社會調查方法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文獻研究를 통해서는 在日同胞社會에서의 統一運動에 關해 주로 檢討 整理하고, 社會調查方法을 통해서는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을 實證적으로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社會調查方法은 說問紙에 의한 郵送調查의 方法을 택하였다. 調查對象은 日本의 大都市 東京과 大阪에 居住하는 濟州同胞로 잡았는데 東京과 大阪을 택한 이유는 이들 地域에 濟州新聞社의 支局이 있어 그 接近이 용이하였기 때문인데 사실상 在日濟州同胞가 이들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도 意義가 있는 것으로 본다.

說問問項은 30個 문항으로서, 16 문항은 在日濟州同胞에 대한 歷史的 社會的 背景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14 문항은 이들의 統一安保意識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으로서, 本稿에서 는 統一安保意識에 關한 문항과 關連된 部分만을 추출 研究 分析코자 한다.

統一安保에 關한 問項중, 韓半島 統一에 關連한 문항은 6개, 北傀의 戰爭挑發危險에 대한 認識度를 위한 것이 2개, 北韓共產主義社會觀에 關連된 문항이 2개, 日本觀에 關한 문항이 4개로 構成되어 있다.

또한 설문문항의 形式은 주로 構造的 質問形式을 택하였으며, 內容上으로는 間接質問의 形式을 택하였다.

질문지는 500枚를 송부하여 130枚를 回收하였는데 그 回收率이 低調하여 資料로서의 貧困을 면치 못한다. 資料로서의 貧困性의 問題는 原則的인 標準을 못하였는데도 물론 存在하고 있다.

回收된 調查資料는 手動處理하였으며 單純集計와 交叉集計에 의해 分析하였다.

끝으로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限界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性格上 이 分野에 대한 序說的

接近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言及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 限界點은 첫째, 文獻研究에 있어서 直接資料를 使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극히 制限된 資料에 局限하였다는 것, 둘째, 社會調查에 있어서 對象地域을 局限하였다는 點과 質問紙 回收率의 低調한데서 오는 資料의 零細性때문에 分析結果를 一般化하기 어렵다는 것, 셋째 原則的인 標集過程을 거치지 못하였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本 研究의 題目에서 「…序說의 ……」이라는 表現을 했듯이 本稿는 이 方面에 관한 研究에 있어 序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2. 調查對象者의 屬性

具體的 調查結果의 分析 이전에 調查對象者의 一般的인 屬性을 검토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 (1) 性別 : ①男 95名 (73.1%) ②女 30名 (23.1%) ③無回答 5名 (3.8%)
- (2) 年令 : ①20代 31名 (23.8%) ②30代 24名 (18.5%) ③40代 26名 (20.0%)  
⑤60代 12名 (9.3%) ⑥無回答 2名 (1.5%)
- (3) 教育水準 : ①國民學校卒業 以下 12名 (9.2%) ②中·高卒 및 中退 58名 (44.6%)  
③專門校 以上 57名 (44%) ④無回答 3名 (2.3%)
- (4) 職業 : ①自營業 < 유흥음식업, 상업, 봉제업, 공업, 아파트경영등 > 42명 (32.3%)  
②被雇用者 32名 (25.4%) ③民團職員 18名 (13.8%)  
④主婦 7名 (5.4%) ⑤其他 3名 (2.3%) ⑥無職, 無回答 26名 (20%)

## 三. 在日同胞社會의 統一運動

### 1. 在日同胞社會의 南과 北

세계제 2차대전의 終戰은 日本에게 패망을 안겨준 대신 우리 韓國人에게는 해방을 가져왔다. 당시 2백 30萬名에 이르는 在日同胞들은 우선 日本內에서의 韓國人의 권익옹호를 위해 團體를 만들고자 1945年 9月 10日 東京에서 「在日朝鮮人聯盟準備委員會」를 始發點으로 日本各地에서 準備委員會를 結成하고 이어 10月 15日 全日本代表者 5천명이 參加한 가운데 「在日朝鮮人聯盟」을 結成하였다.<sup>1)</sup>

結成당시 韓聯은 同胞들의 淸國斡旋, 生活相談, 國語講習과 当面한 民生問題解決등을 노력하는 純연 정치적인 색채나 이데올로기적인 偏見을 介入口키지 않은 문자 그대로 民族愛로만 뭉쳐진 단

1) 康仁德, “北韓의 對日政策”, 金俊澤編, 中共團의 將來, 汎文社, 1967, PP.256 - 261.

체로 在日韓國人은 누구나 할것없이 대동단결하여 이 團體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朝聯의 活動은 政治犯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金天海, 德一球一等 日本共産黨 幹部들의 指導를 받게 됨으로써 본래의 성격이 變質, 左傾化하게 되자 이에 不滿을 품은 인사들이 朝聯에서 離脫, 自由民主主義를 표방하는 「在日本朝鮮建國促進青年同盟( : 建青)」(1945.11.15)을 組織하였다. 建青은 처음에 「自由民主主義建設」을 위해 在日同胞青年들이 中心이 되어 조직한 단체로서 朝鮮新聞을 발간하고 信託統治反對, 3.8선철폐주장, 본국의 完全獨立主張促進을 위한 여러가지 運動을 活潑히 展開함으로써 세력을 크게 확장시켜 나갔으나 그 이후 朝聯과 불가피하게 意見對立을 보게되어 피비린내나는 衝突이 發生하게 되었다.

여기서 朴烈을 中心으로 한 「新朝鮮建設同盟」이 結成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同胞社會에는 朝聯, 建青, 建設同盟의 3個團體가 定立하게 되었다. 그러나 建設同盟은 너무나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活動만을 전개해오다가 1946年 10月 3日 해산하고 말았으며, 朴烈은 그후 「在日朝鮮人居留民團」을 結成하고 建青은 民團의 同盟體로 예속시켰다가 나중에 「在日本大韓青年團」으로 개칭 발전시켰다. 그러나 건국후 1949年 1月에는 駐日代表部가 設置됨으로서 民團의 공식명칭은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이라고 改稱되었으며 오늘에 이르렀다.<sup>2)</sup>

한편 朝聯은 결성 이래 줄곧 日本共産黨의 指導下에 있었으며 1948年 9月 8日 北傀政權이 樹立되자 北韓政權의 政綱을 즉시 支持함을 天命하고, 北傀政權의 主張에 외거한 南北韓의 統一獨立을 주장함과 同時에 日本共産黨의 目標인 日本의 「民主革命」達成을 기본목표로 하는 各種 鬪爭을 展開하여 각종 不法暴力事件을 자행하자 1949年 9月 8日 暴力團體로 規定되어 결국 해산명령을 받았다.<sup>3)</sup> 朝聯의 해산에 의하여 活動基盤을 잃은 共産系 在日同胞들은 1950年 6月 7日 北韓의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擴大中央委員會決議」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組織體를 발족한 것을 결정, 1951年 1月 9日 「在日朝鮮統一民主主義戰線」을 발족하였다. 또한 韓國에 6.25 동란이 일어나자 이들은 北傀의 祖國戰線과 直結하면서 「祖國死守」를 目的으로 하여 青年行動隊를 核心으로 하는 「祖國防衛委員會」를 결성, 「北韓의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에 直接 加담함으로써 祖國의 統一獨立을 達成하자」는 구호아래 韓國戰線에 보내는 軍수품의 생산 및 수송방해, 「조국구호기금」 차출 및 무기의 모집, 군사훈련의 실시등, 直接的인 對北傀支援鬪爭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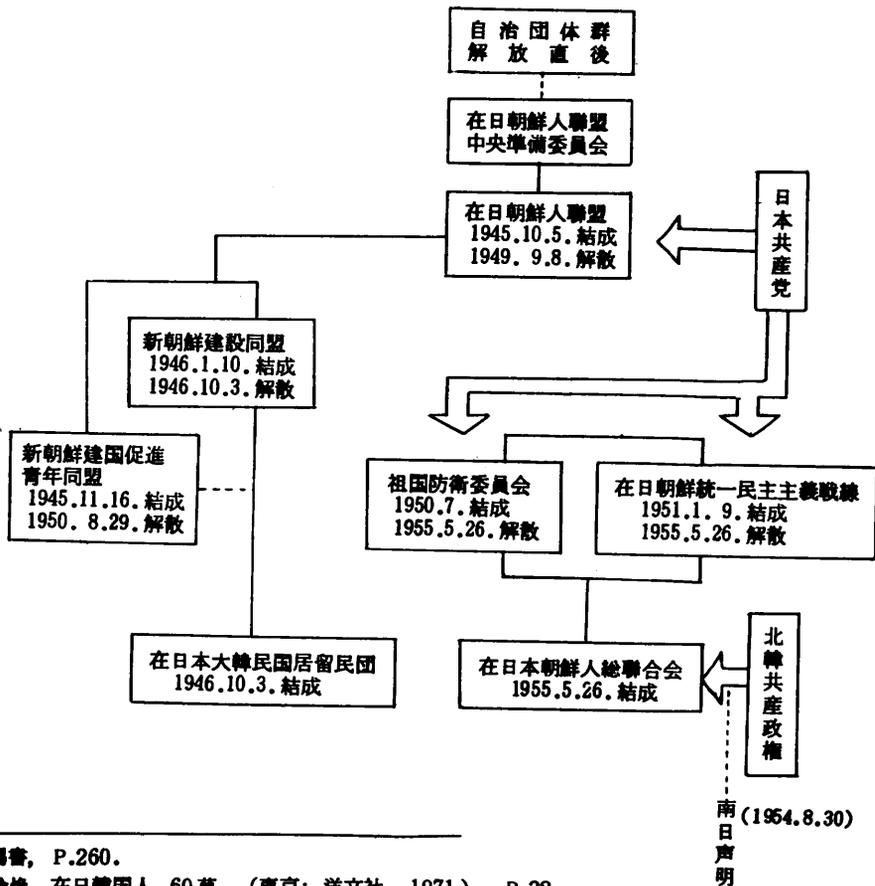
이 두조직은 서로 다른 조직체였으나 상호불가분의 관계에서 日共의 지도를 받아 대중적인 鬪爭을 전개했으며 1952年 前半期까지 이들 라익계 在日同胞들은 게릴라의 戰術에 입각한 허다한 조직적이고 暴力的인 亂動事件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基本路線은 韓國에서 休戰에 이루어진 후에도 그들의 活動을 온갖 非合法的인 手段에 의해 움직이게 하였다.

2) 李求弘, “在日韓國人의 오늘과 내일” 新東亞, 77, 8, P.206.

3) 康仁德, 前掲書, P.257.

바로 이러한 時期에 제네바會議가 開催 ( 54年 4月 ) 되었고, 이를 계기로 共產陣營은 일제히 平和功勢를 취하게 됨에 따라 北傀도 對日平和功勢를 띄게 되었고 1954年 8月 30日 北傀 外務相 南日은 日本과 北傀와의 國交正常化를 호소하는 한편 在日同胞를 北韓의 公民으로 直接 지도하는 政策을 표명하였다. 4) 그리하여 日本政府뿐만아니라 日本國民에 뿌리깊히 박혀진 左翼同胞에 대한 나쁜 인상을 씻어주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北傀는 在日朝鮮人運動의 指導體系를 日本共產黨으로부터 분리시켜 直接 北傀指導下에 둠과 동시에 日本內政에 간섭하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풍기는 모든 鬭爭目標을 배제하고 순수한 朝鮮人の 民族的 問題에만 한정시키는 運動으로 전환시켜야 했다. 이러한 目的하에서 「民戰」, 「祖防委」를 해산하고 대신 조직된 것이 이른바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즉, 朝總聯의 結成을 보았다. 5) ( 圖 1 參照 )

< 圖 1 > 民團과 朝總聯의 結成過程



4) 上掲書, P.260.

5) 李璣煥, 在日韓人 60萬, (東京: 洋文社, 1971), P.38.

北傀는 「對南赤化革命의 背面基地」로서 日本을 거점으로 한 迂迴戰術을 쓰기위해 第2戰線을 축성했는 바, 그 主役부대가 朝總聯이다. 北傀는 朝總聯을 그들의 政權機關인 祖國統一戰線안에 편성된 團體로 간주하여 北傀黨의 直接指導下에 두고 있을뿐 아니라 의장이하 주요 朝總聯 幹部들을 「最高人民會議代議員」으로 임명하는 등 朝總聯이 北傀와 一體感을 갖도록 해놓고 있다. 그럼으로써 北傀는 趙宗諲을 日本진주의 落下傘部隊, 對日外交의 尖兵으로서 最大한 活用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日本은 北傀의 對韓工作의 背面基地로 사용되어 北傀의 第2革命基地의 온상이 된 것이다. 6)

北韓이 在日朝鮮人에게 던진 統一에 관한 첫 發言이 1954年 8月 30日의 南日聲明이며 이를 통하여 「祖國의 自由와 統一獨立을 위해 李承晚—黨과 外來侵略者에 反對하여 鬭爭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를 받들어 趙宗諲은 「外來侵略者를 撤去시키고 李承晚을 孤立시켜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하여 頑心한다」는 綱領을 規定하였다. 이러한 趙宗諲의 統一에 대한 基本論理는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단지 方法論에 있어서 時期에 따라 韓國의 政治情勢에 對應하여 北韓內 情勢를 감안하면서 變遷해왔는데, 嚴密히 말하자면 統一에 관한 宣傳樣式의 變遷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朝總聯은 日本內에서 어떠한 政治活動이나 工作도 「統一을 위한 鬭爭」으로서 行하고 있으며, 이러한 朝總聯의 活動과 工作은 「民族統一」이라는 口號아래서 日本政府의 彈壓을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平和」「統一」은 항상 朝總聯의 革命工作을 은폐하기 위한 煙막으로 利用되어 왔던 것이다.

## 2. 在日同胞社會의 初期 統一運動

우리의 韓民族社會가 外勢에 의해 南과 北으로 分斷되고, 南과 北이 갈라진 것이 바로 엇그제 일처럼 생생한 1950年代에는 在日同胞들은 統一에 관한 순수한 환상에 젖어 있었으며, 「民族의 統一」「祖國의 統一」이란 그들의 당연한 課題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日本속에서도 역시 南과 北으로 나뉘어진 在日同胞들도 祖國을 統一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들을 전개해왔으니, 당시 그들은 統一을 위한 어떠한 活動을 展開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活動들이 소멸되어 왔고 그 意義가 무엇인가를 본다.

### 가. 祖國平和統一 促進全國協議會 ( : 統協 )

우리 在日韓國人 自身들이 超黨派의으로 統一運動을 實踐에 옮긴 것은 1955年 1月 30日 東京에서 發起人 2백 80名이 參加하여 개최된 「南北統一促進協議會 全國發起人大會」에서 었다. 7)

6) 内外通信, 綜合版IV, 78, PP.528 - 529.

7) 田驥, 「朝總聯을 통해 본 北傀의 統一方案」, 高大 亞細亞研究所 共產黨研究室編, 韓國統一의 理論的 基礎, 1972, P.447.

同年 6月 24日 東京에서 代議員 200名이 參加하여 發起人大會, 宣言採択, 綱領規約을 改正하고 會議의 名稱을「祖國平和統一促進全國協議會」로 改稱하였다.

統協의 行動綱領은 ① 過去를 反省하고 寬容하여 民族의 總親和를 기하고 ② 平和的 統一達成을 기하며 ③ 外國軍의 撤去와 外勢의 간섭배격 ④ 南北會談과 國聯 및 關係國會議開催 ⑤ 南北自由選舉에 의한 統一政府樹立 등으로 定하였다.

統協은 翌 25日에 6.25 記念祭를 開催하였고 8.15 平和署名運動을 展開하였으며 10月 22日에는 常任協議會 委員會를 開催하기도 하였으나 結成되자 얼마 안가서 곧 쇠퇴하여 버렸다.

이러한 統協은 在日韓人社會에서 左右를 통해 協議會를 가진 처음의 것이자 또 唯一한 것으로 意味를 갖으나, 統協結成에 대한 조총련과 民團의 反目과 함께 海外에서 在住하기 때문에 統一에 대한 祖國內 國民意識과는 유리된 公論에서 出發하여 理想으로서 統協은 可能했지만 現實에 있어서는 적합할 수가 없었다.

나. 「朝鮮中立化運動準備會」와 「코리아評論」

韓國動亂後 休戰協定이 成立될 무렵, 日本社會內에 日本의 中立化구상이 한창일 때, 1953年 7月 金三奎에 의해 「朝鮮中立化運動準備會」가 탄생하고 日本文 「朝鮮中立化를 위해」라는 pamphlet이 발간되어 주목을 끌었다. <sup>8)</sup> 그러나 이 運動은 組織自体가 없었고 論理도 현실을 떠난 理想論이기 때문에 有名無實하게 되었다.

또한 1957年 11月부터 中立化統一論의 理論紙로서 「코리아評論」이 月刊誌로서 나오게 되었다. 이 月刊紙는 61年의 韓國革命에 호응,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4年 7月 復刊되었으며 朝總聯은 이것을 韓國의 發想으로 敬遠하였다.

다. 「白葉」同人會

「白葉」은 崔鮮을 中心으로 在日韓人文芸人들이 모여 만든 同人誌로서 1957年 9月 15日에 創刊되었다. 白葉同人들은 朝總聯系와 民團系의 文人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여러가지 行事を 개최하였는데 1960年 9月에는 「白葉創刊 3週年記念文化祭」를 개최하고 1961年 4月 18日에는 統一의 색채를 띤 「祖國平和統一南北文化交流促進在日文化人會議」를 結成, 「白葉」同人代表 崔鮮은 民團側 文化人 代表가 되었으며, 이날 「民團 朝總聯合同文化祭」를 개최하였다. 이어 수차례의 合同美術展, 사진전 등 文化祭를 개최하였으며 동시에 合同文化人會議도 가졌다.

이 「白葉」의 內容은 처음에는 文芸誌的인 성격이었고 매우 自主적이었으며 特定한 경향이 없었으나 점차 政治的 發言의 內容으로 변져 對外活動으로 本國의 國家保安法 反對鬭爭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白葉은 朝總聯의 工作對象으로 利用되어 소멸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白葉運動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이며 現實的인 것으로서 먼저 理想으로서의 統一을 떠드

8) 上掲書, P.455.

는 것이 아니라 民團과 朝總聯을 가능한 절차에서 융합시키고자한 데 있으며 그 合同文化會議은 매우 진지하게 論議를 거듭하여 왔었다.

#### 다. 「韓國民自主統一同盟日本本部」의 活動

韓民自統日本本部는 「統一朝鮮新聞」을 發行해 왔던 李榮根을 中心으로 1965年 7月 18日 東京에서 結成되었다. 이것은 이미 「統一朝鮮新聞」에 명시해 온 民族自決의 原則, 平和의 方法, 民主主義의 手統이라는 理論의 主張을 實踐運動으로 전개하고자 한 組織體로서 「統一朝鮮新聞」이 創刊될 때는 在日韓國人들에게 希望的 注視를 받기도 했으나 韓民自統의 運動에 이르러서는 度外視된 狀態에 있었다.

이 韓民自統은 韓國에서 亡命한 者들로 韓國에 대한 비판이 매우 準엄하였고, 「統一朝鮮新聞」의 財政出處가 朝總聯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積성으로 간주되었으며 朝總聯 역시 이것을 積성으로 간주하여 쌍방에서 배격을 받는 形편으로 조직의 可能性도 없게 되었다.

또한 韓民自統이 結成될 때 在日韓人 社會는 韓日條約締結로서 각기 국적이 固定되었기에 現實을 이탈하여 亡想的 空論에 기울 기우릴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65年 末부터 조총련의 財政援助가 침체되고 1967年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 3. 統一에 關한 具體的 活動

이렇듯 50年代末과 60年代初에 있어서 統協運動과 白葉運動은 그것을 그들의 工作에 利用하려는 朝總聯의 意圖와 民團의 不応으로 소멸될 수 밖에 없었으며, 65年의 「韓民自統」은 韓日條約의 체결로 統一에 대한 환상의 소멸과 함께 그 존재의의가 소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70年代에 이르러서 朝總聯은 統一問題에 대한 具體的 工作을 展開하였다. 朝總聯의 모든 活動은 결국 赤化革命이란 궁극적 目的으로 귀결되었으며 그들의 活動은 合法, 非合法을 가리지 않고 行하여 갔다. 9) 그동안 行하여진 朝總聯의 工作을 전체적으로 把握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朝總聯의 具體的 工作

##### (1) 對民團工作

반대한 人員과 組織을 동원하여 民團系 및 中立系 同胞를 朝總聯산하에 흡수시키려는 赤化工作을 하고 있으며 民團幹部를 買収하려는 工作을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民團의 活動에 對한 방해공작으로 소위 베트콩파를 民團의 요소요소에 프락치로 심어놓았다가 때가 오면 民團의 주도권을

9) 張龍河, 「朝總聯의 實態」, 立法調査日報, 大韓民國國會圖書館, 79,7·8, P.96.

장악 그들의 戰略戰術대로 民團을 끌고 나가려는 工作을 하고 있다. 이 베트콩파들은 反政府 反國家的인 行動을 일삼고, 特別히 異國과 其他地域의 同胞社會에 그들의 同助勢力을 규합하여 組織的인 反政府, 國家行爲를 획책하고 있다. 10)

#### (2) 韓國에 對한 工作

朝總聯은 對南工作의 目標을 ㉠ 韓國政府의 건복 ㉡ 韓日關係의 이간 ㉢ 韓國의 國際的 孤立, ㉣ 駐韓美軍의 철수등에 두고, 工作對象으로는 韓日關係 이간을 위한 親北傀日本人(革命의 同伴者로서, 特別히 日共黨), 民團 및 日本을 訪問하는 韓國人, 民團을 이 탈한 反體制人士, 反轉與論造成을 위한 第3國人등을 상대로 活動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內 工作의 事例를 들면 韓國內에 있었던 61年의 「民族日報」事件, 金圭南國會議員 스파이事件 등이며 이는 朝總聯 第22次 中央委員會에서 결정된 「좀 더 次元높은 工作」을 위해 韓國에 거물급 工作員을 침투시켰던 것이다.

#### (3) 對外宣傳活動

朝總聯은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各種 社會團體 및 政黨人들과 接觸하여 그들을 北韓으로 초청 또는 포섭을 하고 있으며 각종 「친선모임」을 만들어 北傀의 위장된 平和政策을 宣傳하고 그들을 日·北傀간의 關係개선과 조총련의 권익옹호에 앞잡이로 活用하고 있다. 나아가서 朝總聯은 그들로 하여금 北傀의 政策을 세계에 宣傳하여 北傀의 國際的 지위를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한국을 國際的으로 고립시키려는 反轉活動을 전개토록 壓力을 加하고 있다.

北傀 및 朝總聯의 對民團工作의 부산물인 베트콩派는 73年 8月 15日 소위 「韓國民主回復統一 促進國民會議日本本部」를 結成, 76年 8月 日本을 包含한 세계 15개국 反轉人士 60名을 초청하여 소위 「韓國問題緊急國際會議」를 열고 이 會議에서 韓國의 人權問題를 왜곡 거론토록 배후 조정하는 등 國際的으로 反轉與論造成에 광분하고 있다.

#### (4) 共產主義教育

北傀는 直接的인 軍事的 侵略戰術 아니면 相對方 住民들의 思想을 分열시켜 자기편에 유리한 行動(폭동, 구메타)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그들 스스로 混亂에 빠져 악화 파멸하도록 하는 소위 第三의 戰爭에 朝總聯을 活用할 目標로 삼아 일찌기 在日同胞들에게 共產主義의 教育을 施行하였다. 그리하여 朝總聯은 北傀의 指示에 따라 在日同胞들에게 人民共和國의 公民으로서 必要한 教養과 技能을 습득시켜 이른바 「民主祖國建設」의 役軍이 될人材를 양성한다는 미명하에 反民族的 共產主義의 教育을 강행하고 있다.

10) 上揭書, P.100.

이들은 教育方針에서 北傀의 憲法, 教育規則, 公民의 權利를 지킬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教育機構는 지난 55年 7月 「在日朝鮮人教育會」가 朝總聯의 산하단체로서 조직되어 이것이 朝總聯系學校를 통괄하고 있으나 朝鮮大學만은 이를 별도로 하고 있다. 政經學部등 7개學部에 1천여名의 學生이 朝總聯 會長 한덕수(學長겸임) 등 1백여명의 教授에 의해 教育받고 있는 朝鮮大學生들은 전원 기숙사에 수용, 군대식 규율아래 엄격한 集團生活을 강요 당하고 있다.<sup>11)</sup>

1975年 現在 초급학교 91個校, 中等學校 58個校, 高等學校 11個校, 大學 1個校 등 총 161個校에 約 2만 2천명의 學生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밖에 中央學院, 朝青班 및 地方學院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幹部들의 思想強化와 實務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北傀는 이른바 「教育援助費」란 名目으로 지난 57年부터 79年 7月까지 71회에 걸쳐 모두 263억 628만 2733 엔을 보냈는데 지난 75年부터 北傀의 경제파탄 및 가중되고 있는 外債難으로 예정된 金額의 반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資金은 名目上으로는 教育援助費이지만 그 대부분은 工作金으로 流用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5) 北送事業

北傀는 居住地選擇의 自由와 民主主義의 배려라는 美名下에 1959年 12月부터 在日同胞의 北送을 시작하여 1979年 7月 現在 182次에 걸쳐 모두 9만 3천여명을 北送했다. 1971年 12月(162次)부터는 소위 自費負擔帰國이란 名目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北送을 계속하고 있으나 北送된 親知들에 의해 北韓의 實情을 把握한 바 날이 갈수록 北送希望者가 격감하고 있으며 이에 궁여지책으로 朝總聯은 北送人員을 채우기 위해 北韓出身同胞 및 北韓에 연고가 있는 同胞, 北送 잔류가족들을 對象으로 강제매수, 기만유인, 협박등 온갖 手段으로 北送熱을 고무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最近들어 北送船 승선직전에 극적 탈출한 同胞들이 격증하고 있어 北送自体가 강제적이고 非人道的인 行爲임이 完全히 들어나고 있다.

#### (6) 宣傳活動

朝總聯은 현재 「朝鮮新報」를 비롯하여 23種의 정기간행물과 對外宣傳用인 「People's Korea」 등 15種의 간행물을 발행, 北傀의 對外宣傳活動과 70萬 在日同胞의 左傾化 및 對南赤化를 위해 展開되고 있는 각종 活動을 뒷받침하고 있다.<sup>13)</sup> 또한 이들은 在日同胞들의 호응을 얻고 日本人으로 부터 공명을 얻기 위한 言論 出版 文化 藝術 體育活動을 活潑히 展開하고 있다.

最近 北傀는 지난 79年 10月 14日 朝總聯의 산하단체인 소위 「在日本朝鮮人言論出版協會」

11) 内外通信, 前掲書, P. 531.

12) 康仁德, 前掲書, P. 266.

13) 張龍河, 前掲書, P. 100.

創立 25 周年을 맞아 이 協會가 그동안 在日同胞들에 對해 北傀의 統一方針을 널리 解説 宣傳하는 政治宣傳事業을 行해왔다고 부추기는 한편 앞으로는 反韓·反美鬭爭 宣傳등 北傀의 對外宣傳宣勳 事業을 強化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朝總聯은 民團 및 韓國政府의 活動에 對한 양상으로 방해공작을 屐왔으며 이에 對한 對策을 考案하여 對한 方法으로 그들에게 有利하게 活用해 왔다.

#### 나. 民團의 具體的 活動

한편 이상의 것과 관련 우리 民團의 統一運動을 살펴보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朝總聯은 그들 活動이 赤化統一로 귀결지워지는 非合法的 工作을 전개한데 비해 民團은 이에 直接 行動으로 對항하거나 鬭爭을 하지는 않았으며, 民團은 倂준히 韓國政府의 平和統一政策에 對응하는 자세를 보여왔고 이에 合法的인 方法으로 實踐해왔다. 民族統一이란 名目아래 모든 暗躍을 행해왔던 朝總聯과는 달리 民團은 統一에 對한 순수한 입장을 취해 民團의 諸盤活動은 統一에 對한 귀결지워지는 않았다.

##### (1) 母國訪問事業

50 年代와 60 年代를 거치면서 우리 在日同胞들은 共產主義者들도 같은 民族成員으로 民族愛에 共感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幻想的 期待를 完全히 버리게 되었다.

民團은 結成 초기부터 信託統治反對運動, 6.25 總擧기대회, 北送反對運動, 韓日會談促進運動등 倂준한 活動을 벌여왔지만 지난 75 年 7.4 共同聲明 3 周年을 기하여 朝總聯同胞들에게 對한 民族運動으로서의 母國訪問事業은 보다 倂시적이고 積極的이며 獻身的인 차원에서의 統一運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14)</sup>

지난 75 年 民團은 7.4 공동성명 3 周年을 기하여 朝總聯 同胞들에게 「理念과 思想을 卓越한 人道的인 境地에서 故鄕을 자유로히 訪問할 수 있도록 積極추진하겠다」는 실로 충격적인 宣言을 하고 나갔다. 이에 朝總聯은 倂각 그들의 倂 조직을 總동원하여 對유와 對협으로 이를 對지하는 데 對안이 되었으니, 「南朝鮮에 가면 영영 못돌아온다」 「2 - 3 年內에 統一이 되면 그때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등 朝總聯의 對선전 때문에 初期인 75 年 秋夕과 旧正母國訪問때는 民團員이나 그 家族들의 倂유로 반신반의 하며 방문을 對원하였고 後期는 祖國의 發展과 同胞 愛를 보고 느끼고 돌아간 이웃이나 같은 倂宗連계 倂조직원의 倂경험담을 듣고 들어난 朝總聯의 對위 선전은 마침내 倂宗連계 同胞들을 民團으로 對향하게 하였고 그들의 倂조직마저 對혼들어 놓았다.

이와같이 朝總聯系 同胞들이 모국을 다녀간 倂수가 倂점 늘어나고 또한 그들의 입을 통해 倂국

14) 金忠錄, “在日僑胞對策—安保的 次元에서의 考察,” 維新政友, 5 卷 15 号, P. 140.

의 實像이 同胞社會에 전파되자 同胞社會의 판도는 크게 변모해 가고 있다.

朝總聯은 이를 막기 위해 在韓親族調查事業을 전개해 訪韓可能性이 있는 사람의 等級을 매겨 이에 따라 妨害工作을 펴기 시작하였으며 또 그들은 모국을 방문하려는 同胞들을 찾아가 그들의 信用組合인 朝銀에서 용자해간 資金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가 하면 最近에는 母國訪問者와 轉向者들을 不法으로 납치, 감금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서도 모국을 다녀간 조총련계 在日同胞중 이미 4천명이 民團으로 轉向하였고 이들과 함께 2-3세들도 民團系 學校로 속속 轉向하고 있다.<sup>15)</sup>

한편 日本의 各種 메스컴에서도 朝總聯系 同胞의 母國訪問現場을 日本全域에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在日 70萬 同胞뿐아니라 日本人들에게도 人道的인 次元에서 思想과 理念을 초월하여 상당한 충격효과를 주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 (3) 「1백 80일 運動」

이렇듯 해방직후부터 재빨리 민족을 팔고 통일을 팔아 공산주의를 칩투시키려던 在日朝總聯系의 힘과 조직이 朝總聯系 母國訪問團의 離脫로 심각히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금년들어 民團은 이러한 運動을 더욱 積極的으로 活潑히 하기위해 「1백 80일 運動」으로 「前進하는 民團」을 展開하고 있다.

「1백 80일 運動」이란 「平和統一促進, 권익옹호, 民族教育을 통한 新生活運動, 朝總聯 母國訪問事業」이다.

在日同胞社會는 이미 2世의 時代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政府의 행정차별은 외연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社會的 蔑시도 가실줄 모르고 있다. 在日同胞에 대한 이와같은 차별대우는 朝總聯의 분열책동을 加一層해주고 있다. 「1백 80일 運動」이란 이와같은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된 愛國運動이며 그 中心은 平和統一을 促進하는 事業이다.<sup>16)</sup>

## 四.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

### 1. 韓半島 統一에 대한 視角

#### 가. 統一問題의 解決에 있어서의 沮害對象

解放된지 34年, 建國한지 31年, 보통 한 세대로 치는 이 期間이 지났지만 分斷된 民族社會를 다시 하나로 再統一해야 한다는 課業은 統一에 대한 民族의 意志와 能力이 결여된 때문인지

15) 李求弘, 前掲書, P.214.

16) 申容守, “在日同胞安保啓導活動紀行, 舞臺報, 79.7.15.

아니면 주변 강대국사이의 合意가 欠如된 때문인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南北韓關係는 「戰爭 危機의 云謂」로 특징지어져 있다. 그러면 江山이 세번 반쯤은 바뀌었을 기간이 흘렀지만 民族成員 모두가 한결같이 民族的 課業으로 여겨온 統一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 沮害對象은 무엇인가?

이러한 觀點에서 本 研究에서는 먼저 「韓半島의 統一問題가 잘 解決되지 않은 데 대한 責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를 물어 보았다. 이 물음에 대한 応答의 結果는 <表 4 -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2.3%가 統一問題 解決의 第1의 沮害對象으로 北韓共產集團을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6.9%가 韓半島를 둘러 싸고있는 주변 4강대국(美·日·中共·蘇)에 그 責任이 있다고 들고 있다. 根本的으로 통일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음이 오직 大韓民國에 그 責任이 있음을 지적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으나 南北韓 양측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한 사람이 13.1%나 된다. 기타에 해당되는 20%는 그 責任을 「強大國과 南北韓양측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 11.5%, 「北韓共產集團과 強大國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 6.2%, 「北韓共產集團과 強大國 그리고 大韓民國에 공히 다 그 責任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2.3%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모르겠다」와 無応答을 서로 합치면 7.7%나 된다.

<表 4 - 1>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내용	실 수	%
북한공산집단	42	32.3
미·일·중공·소련등 강대국	35	26.9
대한민국	0	0
남북한양측	17	13.1
모르겠다	8	6.1
기타	26	20
무응답	2	1.6
계	130	100.0

여기서 民族의 念願인 統一을 沮害하는 重要한 對象이 바로 赤化統一을 획책하는 北韓共產集團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약 3分之1에 지나지 않고, 그 原因을 力學的인 國際政治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26.9%나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問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7.7%나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必要가 있다.

그러면 統一을 沮害하는 對象에 대한 認識과 世代別, 北韓의 南侵으로 인한 戰爭 可能性과 어

따한 關係가 있는가를 알아보자. 먼저 統一을 沮害하는 第1의 對象과 世代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表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이 가장 중요한 統一沮害對象으로, 다른 世代보다도 一세 층에게 제일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世代가 낮아질수록 그 比率이 더욱 낮아진다.

<表4-2> 世代別과 統一沮害 對象

통일저해대상 세대		북한	4강	대한민국	남북한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계
		4세	0 (00)	0 (00)	0 (00)	0 (00)	0 (00)	1 (3.8)	0 (00)
3세	9 (21.4)	3 (8.6)	0 (00)	1 (5.9)	1 (12.5)	0 (00)	0 (00)	14 (10.8)	
2세	12 (28.6)	20 (57.1)	0 (00)	7 (41.2)	6 (75.0)	5 (19.2)	1 (50.0)	51 (39.2)	
1세	21 (50)	10 (28.6)	0 (00)	8 (47.0)	1 (12.5)	19 (73.2)	1 (50.0)	60 (46.1)	
기타	0 (00)	2 (5.7)	0 (00)	0 (00)	0 (00)	1 (3.8)	0 (00)	3 (2.3)	
무응답	0 (00)	0 (00)	0 (00)	1 (5.9)	0 (00)	0 (00)	0 (00)	1 (0.8)	
계	42 (100.00)	35 (100.00)	( )	17 (100.00)	8 (100.00)	26 (100.00)	2 (100.00)	130 ( )	

3세 (21.4%) 보다는 2세 (28.6%) 가, 2세 보다는 1세 (50%) 에게 北韓共產集團이 統一을 沮害하는 第1의 對象으로 相對적으로 높게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韓國의 統一을 저해하는 대상에 관한 인식과 北韓에 의한 戰爭 可能性에 대한 認識과를 交叉分析해보자. <表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이 統一을 沮害한다고 보는 見解의 경우 北韓의 南侵으로 인한 戰爭은 美軍이 撤収하면 可能性있다 (71.4%), 매우 緊迫하지 않다 (16.6%), 매우 緊迫하다 (4.8%), 可能性없다 (0%) 順으로 比率을 보이고 있다.

92.8% 라는 대다수가 北韓의 戰爭挑発 可能性을 믿고 있다. 특히 注目할 사실은 統一이 沮害됨은 北韓側에 그 責任이 있다는 見解를 가진 应答者의 경우 北韓의 南侵으로 인한 戰爭은 可能性이 없다는 安易한 견해는 한사람도 없음은 北韓의 一貫된 好戰性을 깊이 인식한 때문으로 分析된다.

<表 4 - 3> 北傀에 의한 戰爭可能性과 統一沮害對象

통일저해대상 전쟁가능성	북한	4강	대한민국	남북한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계
매우 긴박하다	2 ( 4.8)	3 ( 8.6)	0 ( 00)	1 ( 5.9)	0 ( 00)	0 ( 00)	0 ( 00)	6 ( 4.6)
가능하나 긴박하지 는 않다	7 (16.6)	16 (45.7)	0 ( 00)	7 (41.2)	2 (25.0)	1 ( 3.9)	0 ( 00)	33 (25.4)
가능성이 없다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2 ( 7.8)	0 ( 00)	2 ( 1.5)
미군이 철수하면 가능성이 있다	30 (71.4)	16 (45.7)	0 ( 00)	8 (47.0)	1 (12.5)	6 (23.4)	0 ( 00)	61 (46.9)
모르겠다	1 ( 2.4)	0 ( 00)	0 ( 00)	0 ( 00)	5 (62.5)	0 ( 00)	0 ( 00)	6 ( 4.7)
기 타	1 ( 2.4)	0 ( 00)	0 ( 00)	1 ( 5.9)	0 ( 00)	17 (64.9)	1 (50.0)	20 ( 15)
무 응 답	1 ( 2.4)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50.0)	2 ( 1.5)
계	42 (100.00)	35 (100.00)	0 ( )	17 (100.00)	8 (100.00)	26 (100.00)	2 (100.00)	130 <sup>※</sup> (100.00)

나.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에 대한 滿足度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은 「平和統一」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先平和定着 後統一」이다. 「平和統一」은 두가지 構成要素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平和」이고 또 하나는 「統一」이며 그 바탕은 「民族愛」로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7)</sup> 論理的으로 굳이 이 두 構成要素간의 關係를 따진다면 「平和」가 「統一」보다 앞선다는 뜻이 된다. 즉 아무리 統一이 民族至上의 課題일지라도 平和的인 方法以外的 方法으로는 推進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에 대해 在日濟州同胞들은 어느 정도 滿足感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자 '統一을 위한 大韓民國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어 보았다. <表 4 - 4>에서 보듯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17.7%,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가 49.2%이다. 반면에 "대체로 불만이다"가 0.8%, "대단히 불만이다"가 15%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을 지지하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66.9나 된다는 사실은 朝總聯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선전하고 있는 北傀의 偽裝平和統一政策

17) 李相禹, "變化する 統一의 意味와 새 政策課題" 濟州大學 統一問題研究所 주최 統一問題 세미나 發表要旨, (1978, 11, 3) P.13.

이 실 基盤을 잃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表 4 - 4>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내용	실수	%
대단히 만족한다	23	17.7
대체로 만족한다	64	49.2
그저 그렇다	26	20
대체로 불만이다	1	0.8
대단히 불만이다	2	1.5
기타	1	0.8
무응답	13	10
계	130	100.0

그럼에도 “그저 그렇다”가 20%, 無응답이 10%나 되고 있다는 점에서 在日同胞에 대한 統一弘報方案이 검토되면서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는 在日同胞들은 北傀의 위장평화공세에 현혹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対策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러면 統一政策에 대한 満足度는 世代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世代別로 보면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에 대한 満足度는 一世 계층이 제일 높으며, 2世, 3世로 오면서 만족도는 더욱 낮아진다. 특히 <表 4 - 5>에서 보듯이 3世층에 오면 그 満足도가 2世, 1世에 비해 아주 낮다는 점에 留意해야 하리라 본다.

또한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에 대한 満足度는 膠着된 南北對話再開를 위한 大韓民國의 政策方向과는 相關關係가 있어 <表 4 - 6>에서 보듯이 大韓民國의 統一을 위한 努力에 肯定的 満足도를 表示하는 경우에도 교착된 南北對話 재개를 위해 北傀의 主張 一部 受諾, 強大國 仲裁要請해야 한다는 사람이 거의 半數가 된다는 점에 注目해야 한다.

<表 4 - 5> 世代別과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에 대한 滿足度

세대	만족도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이다	대단히 불만이다	기 타	무응답	계
4 세	( 0 )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100.0)	0 ( 00 )	1 ( 0.8 )
3 세	1 ( 4 )	3 ( 4.6 )	4 ( 16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6 (46.2)	14 (10.8)
2 세	11 (47.8)	24 (36.9)	14 ( 56 )	0 ( 00 )	1 (50.0)	1 ( 00 )	0 ( 00 )	1 ( 7.6 )	51 (39.2)
1 세	11 (47.8)	38 (58.5)	6 ( 24 )	1 (100.0)	1 (50.0)	1 ( 00 )	0 ( 00 )	6 (46.2)	63 (48.5)
무 응 답	0 ( 00 )	0 ( 00 )	1 ( 4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 0.7 )
계	23 (100.0)	65 (100.0)	25 (100.0)	1 (100.0)	2 (100.0)	1 (100.0)	1 (100.0)	13 (100.0)	130 ( )

<表 4 - 6> 大韓民國의 南北對話 政策의 方向과 統一政策에 대한 滿足度

만족도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	대단히 불만	기 타	무응답	계
남북대화정책	( )	( )	( )	( )	( )	( )	( )	( )
북피측 주장을 무조건 수락	7 (30.4)	23 (35.4)	8 ( 32 )	1 ( )	1 ( 50 )	( )	6 (46.2)	45 (34.6)
북피측 주장을 일부 수 락	4 (17.4)	11 (16.9)	7 ( 28 )	1 ( )	1 ( 50 )	( )	1 ( 7.6 )	24 (18.5)
강대국에 중재 요청	12 (52.2)	10 (15.4)	4 ( 16 )	1 ( 100 )	( )	( )	4 (30.8)	31 (23.8)
한국의 주장 양보하면서 대화 재개 불필요	( )	3 ( 4.6 )	2 ( 8 )	( )	( )	( )	( )	5 ( 3.8 )
모르겠다	( )	18 (27.7)	( )	( )	( )	1 ( 100 )	1 ( 7.6 )	20 (15.4)
기 타	( )	( )	44 ( 6 )	( )	( )	( )	1 ( 7.6 )	5 ( 3.8 )
무 응 답	( )	( )	( 6 )	( )	( )	( )	( 7.6 )	( 3.8 )
계	23 (100.0)	65 (100.0)	25 (100.0)	1 (100.0)	2 (100.0)	1 (100.0)	13 (100.0)	130 (100.0)

다. 統一問題와 駐韓美軍

北韓共產集團은 統一을 "民族解放運動"의 延長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에 따르면 韓國民族은 日帝植民地統治에서 1945年 8月 15日에 해방될 때 北半만이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南半部」는 日帝를 대신한 美帝가 대신 強占했기 때문에 아직도 未解放의 狀態가 지속되고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못다이룬 民族解放을 完成하는 것이 곧 統一이고 이것은 解放된 北半部の 主導下에 南半部를 占領하고 있는 美帝를 몰아내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北傀의 主張은 곧 韓半島의 戰爭抑止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駐韓美軍을 말리 칠수시켜 武力에 의한 赤化戰略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赤化統一에 강력한 抑制役割을 하고있는 駐韓美軍을 마치 民族統一에 沮害對象으로 糊塗하고 있는 北傀의 偽裝平和攻勢에 대해 어떤 認識을 가지고 있는가? <表 4 - 7>에서 알아보자. 北傀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9.2%이며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은 주둔되어야 한다"가 23.8%, "통일문제와 주한미군문제는 관계없다"고 한 사람이 43.1%나 된다. 그리고 "통일은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8.5%나 된다.

<表 4 - 7>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어떠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응답내용	실수	%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	12	9.2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되어야 한다.	31	23.8
주한미군과 통일은 관계 없다.	56	43.1
통일은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불가능하다.	24	18.5
기타	4	3.1
무응답	3	2.3
계	130	100.0

여기서 韓半島 統一問題의 解決에 있어 前提가 되는 平和定着 즉 戰爭抑止의 問題에 있어 中共과 蘇聯의 支援하에 南侵을 시도하려는 北傀를 견제하는 방패로서의 주한미군의 위치를 간과하는 사람이 52.3%,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통일의 전망에 대한 悲觀的이라는 反應이 18.5%나 되고 있는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教育水準과 職業과 關聯하여 살펴보자. <表 4 - 8>에서 보듯이 統一을

<表 4 - 11> 教育水準과 膠着된 南北對話 재개위한 大韓民國 政策의 方向

( )는%임

남북대화정책 교육수준	북괴주장 무조건 수락	북괴주장 일부수락	강대국에 중재요청	한국주장양 보하면서대 화불필요	기 타	무응답	계
국교졸업이하	( )	2 ( 4.4)	4 ( 16.7)	2 ( 6.7)	3 ( 11.5)	1 ( 20)	12 ( 9.2)
중·고교졸업	( )	19 ( 42.2)	11 ( 45.8)	18 ( 60)	10 ( 38.5)	( )	58 ( 44.6)
전문고이상졸업	( )	23 ( 51.1)	8 ( 33.3)	9 ( 30)	13 ( 50)	4 ( 80)	57 ( 43.8)
무 응 답	( )	1 ( 2.2)	1 ( 4.2)	1 ( 3.3)	( )	( )	3 ( 2.3)
계	( )	45 (100.0)	24 (100.0)	30 (100.0)	26 (100.0)	5 (100.0)	130 (100.0)

소박한 熱望을 보여주고 있다. <表 4 - 12>에서 보는 바처럼, 北傀의 주장 일부라도 받아들여 對話를 재개해야 한다는 경우 93.4%가 北韓의 侵略威脅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南北對話가 北傀의 戰爭挑發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의 表示라고 分析된다. 그러나 戰術的 次元에서 對話를 利用하려는 北傀의 低意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그 對策이 要望된다.

<表 4 - 12> 北傀에 의한 戰爭可能性과 大韓民國의 南北對話政策의 方向

남북대화정책 남침가능성	북괴주장 무조건 수락	북괴주장 일부수락	강대국 중재	한국주장양 보하면서대 화불필요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계
매우 긴박	( )	3 ( 6.7)	2 ( 8.3)	1 ( 3.3)	( )	( )	( )	6 ( )
가능하나 긴박않다	( )	17 ( 37.8)	6 ( 24.9)	6 ( 19.8)	( )	1 ( 5)	3 ( 60)	33 ( )
가능성없다	( )	2 ( 4.4)	( )	22 ( 63.6)	( )	1 ( 5)	( )	25 ( )
미군철수후면 전쟁 가능	( )	22 ( 48.9)	13 ( 54.3)	( )	1 ( 16.7)	2 ( 10)	1 ( 20)	39 ( )
모르겠다	( )	1 ( 2.2)	2 ( 8.3)	( )	5 ( 83.3)	( )	( )	8 ( )
기 타	( )	( )	1 ( 4.2)	( )	( )	16 ( 80)	( )	17 ( )
무응답	( )	( )	( )	1 ( 3.3)	( )	( )	1 ( 20)	2 ( )
계	( )	45 (100.0)	24 (100.0)	30 (100.0)	6 (100.0)	20 (100.0)	5 (100.0)	130 ( )

마. 周辺情勢變動과 統一을 위한 韓國의 當面課題

비단 列強의 角逐場으로서의 韓半島의 悲運의 歷史를 말하지 않고도 오늘날 世界 6個의 核保有國中 3個國(美·蘇·中共)과 1個의 潛在核國(日本)이 相互 적대·경쟁적으로 주위를 포위당한 地政學的 特性으로 인해 주변정세의 변화가 그 内部秩序와 構造에 증대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韓半島의 경우는 더욱 더 주변에서 새로이 展開되고 있는 國際氣流를 把握하거나 理解하는데에 끊임없이 注意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여건에서의 日·中共 平和友好條約을 위시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동은 한국의 통일안보문계에 어떠한 變數로 作用할 것인지에 관한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表 4-13>에서는 “韓國의 수출에 打擊”이라는 경제적 우려를 37.7%가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관계 개선”(21.5%), “평화통일촉진”(10.8%), “강대국 사이의 무력충돌”(6.9%) “北傀의 무력남침”(3.8%)의 順으로 되었다.

<表 4-13> 일본과 중공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응답 내용	실 수	%
평화통일촉진	14	10.8
북傀의 무력남침촉진	5	3.8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개선	28	21.5
한국의 수출에 타격	49	37.7
강대국 사이의 무력충돌	9	6.9
기 타	20	15.4
무응답	5	3.9
계	130	100.0

이와 더불어 <表 4-14>를 보면 統一을 위하여 大韓民國이 수행해야 할 課題로서는 平和定着 및 南北交流(30%)가 제일 큰 임무이며 經濟成長(23.1%), 政治安定(20.8%), 國際紐帶(0.8%)가 그 다음 順이다.

18) 拙稿, “東北亞情勢變動과 統一安保政策上的 濟州島의 座標,” 国土統一院, 1978, P.5.

<表 4 - 14 > 통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시급히 달성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실 수	%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39	30
경제성장	30	23.1
정치안정	27	20.8
국제유대	1	0.8
기타	31	23.3
무응답	2	1.6
계	130	100.0

세대별로 比較하면 <表 4 - 15 >에서 보듯이 1세와 2세의 경우, 当面 第1의 課題를 平和 定着 및 南北交流, 經濟成長, 政治安定順이나, 3세에 있어서는 第一 큰 当面課題로 經濟成長 ( 42.9% ), 平和定着 및 南北交流 ( 35.7% ), 政治安定 ( 14.3% ) 順으로 나타났다.

<表 4 - 15 > 大韓民國의 当面課題別로 본 世代現況

( )는 %임

세대	1 세	2 세	3 세	4 세	무응답	계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17 ( 27.4 )	16 ( 31.4 )	5 ( 35.7 )	( )	1 ( 50 )	39 ( )
경제성장	11 ( 17.7 )	13 ( 25.5 )	6 ( 42.9 )	( )	( )	30 ( )
정치안정	11 ( 17.7 )	14 ( 27.5 )	2 ( 14.3 )	( )	( )	27 ( )
국제유대	0 ( )	1 ( 2 )	( )	( )	( )	1 ( )
기타	22 ( 35.4 )	7 ( 13.7 )	( )	1 ( 100 )	1 ( 50 )	31 ( )
무응답	1 ( 1.6 )	( )	1 ( 7.1 )	( )	( )	2 ( )
계	62 ( 100.0 )	51 ( 100.0 )	14 ( 100.0 )	1 ( 100.0 )	2 ( 100.0 )	130 ( )

2. 北傀의 戰爭挑發危險에 對한 認識

가. 北傀에 對한 戰爭可能性

北傀는 經濟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對外的으로 平和攻勢를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南北對話를 기피한 채 大韓民國보다 優勢한 軍事力을 은밀히 증강시켜왔다. 이는 곧 北傀가 韓半島 統一의 問題를 그들의 革命路線에 입각 武力解放戰을 획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의 韓半島는 「戰爭危機」의 상태로 전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調査에서도 北傀에 對한 戰爭危險에 對한 認識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北韓의 南侵으로 인한 戰爭이 “매우 긴박하다” ( 4.6% ), “긴박하지는 않으나 可能性이 있다” ( 25.4% ),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괴가 남침할 것이다” ( 60.8% ) 등의 反應을 보였다. 따라서 90.8%가 條件만 갖추어지면 北傀는 武力南侵을 감행할 것이라는 見解를 나타냈다. 이는 在日濟州同胞들이 北傀의 對南意圖를 平和的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暴力的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圧倒的인 實情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4 - 16 >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내용	실수	%
매우 긴박하다	6	4.6
가능하나 긴박하지는 않다	33	25.4
가능성이 없다	2	1.5
미군이 철수하면 가능성이 있다	61	46.9
모르겠다	8	6.2
기타	18	13.8
무응답	2	1.5
계	130	100.0

나. 北傀의 武力南侵時 行動類型

위에서 在日濟州同胞들은 北傀의 戰爭意圖와 北傀가 그 意圖를 실제로 行動에 옮길 것이라는 데 대부분이 동의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祖國守護意識이 어느 정도인가를 測定하기 위하여 北傀가 侵略時를 경우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를 確認한 바, <表 4 - 17 >와 같이 確固한 祖國守護 決意를 가진 參戰派가 8.5%, 間接的 支援派가 70.8%, 狀況行動派가 13%, 傍觀派가 7.7%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忌避派는 한사람도 없다.

<表 4 - 17> 북한이 남침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내용	실수	%
즉시 귀국하여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	11	8.5
귀국하지는 않고 간접적 지원을 하겠다.	92	70.8
그대로 두고 보겠다.	10	7.7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겠다.	0	0
모르겠다	15	11.5
무응답	2	1.5
계	130	100.0

그런데 世代와 北傀의 南侵時 取할 行動類型과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응답자의 70.8%가 表示한 귀국하지 않고 간접적 지원을 하겠다는 消極的 行動類型은 1世 층이 가장 높으며 (77.4%), 다음이 2世 층으로 (62.2%) 나타났다.

이에 대해 <表 4 - 18>에서 보듯이 3世 층 (35.7%)은 그 比率이 낮다. 또한, 3世 층은 그대로 두고 보겠다는 방관자적 행동유형에 있어서도 1~2%에 불과한 2世나 1世 계층과는 달리 57.1%나 되어 조국수호에 있어 옹지못한 行動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즉

<表 4 - 18> 北韓에 의한 武力南侵時 取할 行動類型에 따른 世代別 現況 ( )는 %임

남침시 행동유형	4世	3世	2世	1世	무	계
즉시 귀국하여 싸운다	0 ( 00)	0 ( 00)	6 ( 16.2)	5 ( 8.1)	0 ( 00)	11 ( 8.5)
귀국하지 않고 간접적 지원	1 ( 100)	5 ( 35.7)	37 ( 62.2)	48 ( 77.4)	1 ( 50)	92 ( 70.8)
그대로 두고 보겠다	0 ( 00)	8 ( 57.1)	0 ( 00)	1 ( 1.6)	1 ( 50)	10 ( 7.7)
다른 나라로 피신하겠다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모르겠다	0 ( 00)	1 ( 7.2)	6 ( 16.2)	6 ( 9.7)	0 ( 00)	13 ( 10)
기타	0 ( 00)	0 ( 00)	0 ( 00)	2 ( 3.2)	0 ( 00)	2 ( 1.5)
무응답	0 ( 00)	0 ( 00)	2 ( 5.4)	0 ( 00)	0 ( 00)	2 ( 1.5)
계	1 (100.0)	14 (100.0)	51 (100.0)	62 (100.0)	2 (100.0)	130 (100.0)

世代에 있어서는 그 世代數가 적을수록 北韓의 南侵時 行動類型에 있어 보다 積極的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 3. 北韓共產主義社會觀

#### 가. 北韓共產主義社會에 대한 知識源

在日濟州同胞에 있어 北韓共產主義社會에 關한 知識源으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日本매스컴 (55.4%)이며 大韓民國 刊行物은 11.5%, 北韓宣伝物은 0.8%의 順이며 기타가 27.7%나 된다. 기타를 나누어 보면 <表 4 - 19>에서 보듯이 「日本매스컴과 韓國刊行物 그리고 北韓宣伝物」(8.5%), 「日本매스컴과 韓國刊行物」(9.2%), 「日本매스컴과 朝總聯系 親族, 이웃」(4.6%), 「日本매스컴과 韓國매스컴, 北韓宣伝物 그리고 朝聯係 親族 이웃」(2.3%) 「日本매스컴과 北韓宣伝物」(1.5%)의 順이다.

<表 4 - 19> 北韓에 대한 知識은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응답 내용	실 수	%
일본매스컴	72	55.4
북한선전물	1	0.8
조종면계 친족, 이웃	0	0
한국간행물	15	11.5
日本매스컴+ 한국간행물	12	9.2
日本매스컴+ 한국간행물+ 북괴선전물	11	8.5
日本매스컴과 조종면계 친족 이웃	6	4.6
日本매스컴과 한국간행물+ 북괴선전물 및 조종면계 이웃	3	2.3
日本매스컴과 북괴선전물	2	1.6
무응답	8	6
계	130	100.0

여기서 기타를 포함시켜 보았을 때 北韓共產主義에 關한 主要 知識源으로 韓國刊行物은 31.5%, 北韓刊行物은 20%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大多數가 知識源으로 日本매스컴을 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主要 日本매스컴은 北韓共產集團의 일방적인 宣伝報道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日本 言論에 의한 왜곡된 北韓共產社會像을 접하면서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在日濟州同胞들이 北韓의 實情을 正確히 認識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나. 北韓共產社會의 當面問題

지난 30年間, 다른 어느 共產政權에서도 보기 힘든 철저한 1人獨裁體制를 발전시키며 무모한 對南戰爭路線만을 전개해, 오늘날 北韓共產社會가 당면한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外信은 보도하고 있다.

在日濟州同胞의 눈에 인식된 北韓共產體制의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表 4 - 20 >에 밝혀져 있는 바처럼 北韓共產社會의 問題를 인식함에 있어 폭 넓은 것 같다.

<表 4 - 20 >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응답내용	실수	%
개인 숭배화 현상	27	20.8
경제 위기	33	25.4
남한보다 국력이 열세인점	8	6.2
세계로 부터의 고립	12	9.2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	9	6.9
기 타	38	29.2
무응답	3	2.3
계	130	100.0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먼저 「經濟危機」( 25.4%), 그 다음이 「金日成偶像化問題」( 20.8%), 「世界로 부터 孤立」( 9.2%), 「資本主義國家와의 交流」( 6.9%) 「南韓보다 国力이 劣勢」( 6.2%)의 順이다.

기타 29.2%는 「金日成偶像化問題, 經濟危機, 国力의 劣勢, 世界로 부터의 孤立」등 北韓이 안고있는 시급한 문제로 위의 4가지를 다 지적한 사람이 6.9%, 「金日成偶像化問題와 經濟危機 그리고 国力의 劣勢」( 10%), 「金日成偶像化問題와 經濟危機」( 10%), 「經濟危機와 南韓보다 国力의 劣勢」( 1.5%) 등으로 나누어 진다.

4. 日本을 보는 눈

가. 日本生活에 대한 滿足度

祖國을 떠나 他國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同胞들은 그들의 生活에 滿足하든 안하든, 보람이 있는

없든 生을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日本生活에 滿足하느냐는 질문에 15.3%만이 滿足하고 있으며, 16.2%는 不滿足, 65.4%는 그저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여기서 81.6%는 日本에서의 삶이 기쁨이나 보람 또는 의의를 갖는게 아니고 살기위해 살아가는 그런 生活의 연속임을 나타내고 있다.

<表 4 - 21> 현재의 일본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내용	실수	%
만족하다	20	15.3
불만스럽다	22	16.2
그저 그렇다	84	65.4
기타	3	2.3
무응답	1	0.8
계	130	100.0

이와같은 日本生活의 滿足度는 教育水準과 상관계가 있으며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滿足度는 낮아진다. <表 4 - 22>에서 보듯이 교육수준이 제일 높은 專門校 이상이 "滿足한다"의 경우 12.7%로 제일 낮고, "不滿足이다"와 "그저 그렇다"는 응답내용에 각각 20%, 67.3%로 낮은 교육수준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表 4 - 22> 日本生活 滿足度에 따른 教育水準別 現況

( )는 %임

교육수준 일본생활만족도	국교이하	중·고졸업	전문교 이상졸	기타	무	계
만족한다	3 ( 25)	10 ( 17.5)	7 ( 12.7)	( )	( )	20 ( 15.3)
불만이다	( )	10 ( 17.5)	11 ( 20)	( )	1 ( 16.7)	22 ( 16.2)
그저 그렇다	8 ( 66.7)	37 ( 65)	37 ( 67.3)	( )	2 ( 33.4)	84 ( 65.4)
기타	1 ( 8.3)	( )	( )	( )	2 ( 33.4)	3 ( 2.3)
무응답	( )	( )	( )	( )	1 ( 16.7)	1 ( 0.8)
계	12 (100.0)	57 (100.0)	55 (100.0)	(100.0)	6 (100.0)	130 (100.0)

나. 日本에 대한 信賴度

激變하는 東北亞情勢變動에 따라 대두된 駐韓美軍撤収에 관련되어 日本은 韓國의 統一安保에 도 움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不安定要素로 投影되는 日本의 情勢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 답을 찾아볼 수가 없다.<sup>19)</sup>

다만 日本은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友邦이기 때문에 東北亞 政治氣流의 變化와 더불어 安保 面에서 日本의 韓國에 대한 役割 增大는 어느 정도 豫想할 수 있다 하더라도 日本의 對韓半島政 策의 焦點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 더욱 궁금한 基本的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提示한 바 <表 4 - 22 >에서와 같 이 “日本의 經濟的 利益增進”에 34.6%,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25.4%, “韓半島의 平和 統一”에 16.9%, “南北分斷의 固定化”에 6.2%, “韓半島의 赤化統一”에 0.8%의 順으로 反應을 보인다.

<表 4 - 22 >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응답내용	실수	%
남북분단의 고정화	8	6.2
한반도 공산화 통일	1	0.8
한반도 평화정착	33	25.4
일본의 경제적 이익	45	34.6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	22	16.9
기 타	20	15.4
무응답	1	0.8
계	130	100.0

여기서 应答者의 3分之1은 韓國과 友好協力關係에 있으면서도 北傀와 交易을 하는 등 無理念 實利主義에 입각한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하는 日本을 經濟的 動物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으로 日本이 美國대신 韓國의 安保에 대한 保障을 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본 바 <表 4 - 23 >에서와 같이 “믿을 수 없다”가 22.3%, “그럴 필요없다”는 拒否的 反應이 37.6%로 가장 높으며, “잘못되면 日本의 再支配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被害意識이

19) 金順圭, “安保意識에 대한 大學生과 勞動者의 反應研究” 慶南大學 論文集, 1977, PP.147 ~ 148.

10%나 되고 있으며, “日本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가 18.5%나 되어 安保面에서 日本에 대한 信賴度가 아주 낮은 것이 된다.

<表 4 - 23> 일본이 미국대신 한국안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응답 내용	실 수	%
믿을수 있다	5	3.9
믿을수 없다	29	22.3
그럴 필요 없다	49	37.6
잘못되면 일본의 재지배 받을 우려가 있다	13	10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24	18.5
기 타	7	5.4
무응답	3	2.3
계	130	100.0

다. 韓·日間の 当面妥結課題

흔히들 韓國과 日本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가장 먼나라,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가장 혐오와 멸시로 얽혀있는 나라라고 한다. 韓日協定이 調印되어 있는 양국관계가 正常化된 지도 14년이 되어 온다.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韓國과 日本도 많이 변했다 韓國이 옛날의 韓國이 아닌 것처럼 日本도 옛날의 帝國主義 日本은 아니다.

그리고 日本은 이제 美國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우방이다. 언제까지나 「가깝고도 먼나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在日濟州同胞가 생각하는 韓·日間の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表 4 - 24>에서 보듯이 가장 절실한 当面課題로는 “在日同胞의 法的地位” ( 53.1% )이며 그 다음이 “貿易赤字問題 解消” ( 19.2% ), “韓·日安保關係 構築” ( 5.4% ), “日本의 北傀와의 關係改善 防止” ( 3.9% )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를 世代別과 관련시켜 보면 <表 4 - 24>에서 보듯이 1世, 2世層에 있어 “法的地位改善”이 第1의 妥結課題이다. 3世의 경우, “法的地位改善”과 “貿易赤字解消”가 똑같이 第1의 妥結課題로 나타났다. 결국 世代別과 상관없이 在日濟州同胞들은 韓·日間に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로 在日同胞의 法的地位改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表 4 - 24 > 대한민국이 일본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응답내용	실수	%
재일동포 법적지위개선	69	53.1
무역적자 해결	25	19.2
한·일안보관계 구축	7	5.4
일·북한관계 개선 방지	5	3.9
기타	19	14.6
무응답	5	3.8
계	130	100.0

<表 4 - 24 > 韓·日間の 妥結課題에 따른 世代別 現況

( )는 %임

세대	4 세	3 세	2 세	1 세	무	계
법적지위	0 ( 00)	6 (42.8)	31 (60.8)	31 ( 50)	1 ( 50)	69 (53.1)
무역적자	0 ( 00)	6 (42.8)	8 (15.7)	11 (17.7)	0 ( 00)	25 (19.2)
한·일안보관계 구축	0 ( 00)	0 ( 00)	5 ( 9.8)	2 ( 3.2)	0 ( 00)	7 ( 5.4)
일·북한과의 관계개선 방지	0 ( 00)	0 ( 00)	0 ( 00)	5 ( 8.1)	0 ( 00)	5 ( 3.9)
기타	1 ( 100)	1 ( 2.2)	6 (11.8)	10 (16.2)	1 ( 50)	19 (14.6)
무응답	0 ( 00)	1 ( 2.2)	1 ( 1.9)	3 ( 4.8)	0 ( 00)	5 ( 3.8)
계	1 ( )	14 ( )	51 ( )	62 ( )	2 ( )	130 ( )

### 五. 結 論

分斷 34 년이래 갈라진 강토를 어떻게 統合하며 民族統一의 大業을 어떻게 이룩하느냐 하는 문제는 國民的 課題로서 무수할 정도로 論議되어 왔다. 이러한 統一에 대한 論議는 歷史의 흐름에

따라 自体의 性格變化를 겪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統一政策도 이러한 變化에 맞게 그 主眼點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國際情勢와 北韓體制의 흐름을 把握하고 우리의 實情에 맞는 統一原則을 擴大 發展시키고 그 구체적인 政策을 어떻게 定立, 遂行하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政策을 國民이 어느 정도 認識하고 뒷받침하느냐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國民의 統一安保意識인 것이다. 여기에 統一安保意識을 論議하는 理由가 있는 것인데, 祖國을 떠나 外國에 在住하는 海外同胞들의 경우는 어떠한가는 우리의 觀心事가 아닐 수 없다.

北僞는 70年代 들어오면서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편승하여 그들의 國際的인 孤立을 脫皮하고 國際社會에 積極的으로 進出하여 교묘한 方法으로 우리 政府를 허위 비방하는 등 격렬한 宣傳策動을 벌이면서 우리의 同胞들에게 接近하고 있다. 더구나 海外同胞의 75%가 거주하고 朝總聯을 통한 北僞의 선전과 포섭활동이 直接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日本地域에 있어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觀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在日同胞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문제를 在日濟州同胞를 中心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러한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에 대해 우리는 質問紙에 의한 社會調查를 통하여 類型別 說問에 따른 応答를 가지고 實証的 方式으로 分析하였다.

먼저 韓半島 統一에 관한 認識에 있어서 우리 濟州同胞들은 민족의 念願인 統一을 沮害하는 對象으로 주로 對南赤化革命을 획책하는 北韓共產集團(32.3%)과 美·日·中·蘇 등 강대국의 力學關係(26.9%)를 들고 있으며,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에 대한 滿族度에 있어서 “대단히 만족” 17.7%와 “대체로 만족” 49.2%로 66.9%의 多數가 韓國의 統一政策을 支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北僞가 在日同胞를 상대로 朝總聯을 비롯한 諸盤手段을 강구하여 韓國이 「統一보다는 分斷의 固定」에, 韓國의 統一政策이 「民族의 永久分裂策動」이라는 宣傳煽動을 전개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들의 위장평화봉일정책이 在日同胞社會內에서 支持基盤을 잃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駐韓美軍撤収에 관한 한 우리 在日濟州同胞들은 駐韓美軍이 韓半島 統一問題解決의 선결조건인 北僞의 戰爭挑發抑制라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가하기 위해 美軍은 남조선에서 撤去해야 한다」는 그들의 열변 주장과 관련하여 볼 때 政策의 次元에서 속히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8.5%가 統一의 展望에 대한 悲觀論을 가지고 있음을 역시 유의하여야 할 것임에, 統一問題는 꼭 成就하여야 할 民族의 課業으로서 認識提高를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둘째로 이번 調査에서 나타난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在日濟州同胞의 대부분이 교착된 南北對話의 再開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對話再開를 위하여 「北僞側 주장을 일부라도 수락해야 한다」는 사람이 34.6%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의 약 35% 정도가 共產主義者와의 協商에

있어 幻想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北僞는 「南韓当局이 總力安保와 国力培養의 구호밑에서 戰爭準備를 다그쳐오고 國軍 현대화의 간판밑에 戰爭雰圍氣를 조성해오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우리측의 北侵可能性을 일관 주장하여 왔던 바, 우리 在日濟州同胞들의 北僞의 戰爭挑發危險에 대한 認識은 90.8%가 可能性을 応答해 음으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北僞의 南侵時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물음에는 「즉시 귀국하여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투철한 조국수호결의를 표명한 사람은 8.5%에 불과하며 70.8%가 「間接的 支援을 하겠다」는 消極的 反應을 보여 줄 뿐이다.

네째로 北韓의 實像을 把握하는데 있어서 濟州同胞들은 84.1%가 그 主要知識源으로 日本메스콤을 들고 있다. 応答者의 大多數가 北韓共產社會에 대한 판단자료로 日本메스콤에 주로 의존하는데 비해 이번 調査에 의하면 우리 濟州同胞들이 비교적 北韓共產社會의 實像과 虛像을 正確히 認識하고 있음은 多幸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左傾化된 一部 日本메스콤은 北韓共產集團의 일방적인 선전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해 왔으며, 韓半島問題에 대해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를 해왔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의 軸점은 日本의 經濟的 利益增進 (34.6%)과 韓半島의 平和 定着 (24.6%)에 있으며, 安保面에 있어서 日本에 대한 信賴度는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이 우리 在日濟州同胞의 支配的인 見解들인데, 이러한 見解를 教育水準과 關聯시켜 보면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들 일수록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에 대한 滿足度에 있어서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統一에 대한 展望에 있어서도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일수록 悲觀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으며, 日本生活에 있어서 만족도는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不滿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世代와 關聯시켰을 때 世代가 낮아질수록 올바른 統一安保觀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고, 世代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意識들이 貳박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즉 統一에 대한 저해대상으로 北韓共產集團을 지적한 사람은 1세가 가장 높고 3세에 있어 가장 낮으며 北僞 南侵時 행동유형에 있어서 「그대로 두고 보겠다」는 방관적 立場이 1~2세보다는 3세에 가면서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에 대한 意識을 살펴보았던 바, 北韓共產社會를 보는 시각, 日本을 보는 시각은 비교적 현실적이어서 바람직스러우나 이들의 統一安保에 대한 意識은 이해의 不足에서 오는 부정적인 면이 다소 있다. 더구나 在日同胞社會에 있어서 우리의 統一政策을 알리고 앞서 指導해야 할 民團職員의 경우 駐韓美軍과 統一問題에 있어 18名中 6名이 「주한미군과 통일은 무관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4名이 統一에 대한 成就 不可能論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선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安保政策을 在日同胞社會에 뿌리깊게 구현되기 위한 統一弘報 方法論의 재검토와 그 획기적 대책이 要請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韓·日間의 시급한 타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答에서 나타났듯이 在日同胞의 法的地位改善이며, 日本內에서 우리 韓國인들이 法的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生活에 우선 安定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韓國人으로서의 矜持를 갖고 祖國愛를 가지고 祖國의 課業인 大韓民國의 統一安保政策에 主体 勢力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ary -

### A Study on Unification-Security-Consciousness of the Jejuans in Japan

Ko, Sung June

After the division of the country, not only the geography of Korea but also its people,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has been the supreme task of the Korean people. So they has continuously explored the best ways toward peaceful Unification.

But above all, it's the most important that how well all of the Korean people understand and support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to say, th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ople. So it is very necessary to discuss the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and security of all the Korean, even the number of Korean resident aboard.

In case of Korean resident aboard, we cannot help paying a serious attention to Korean resident in Japan where 75% of Korean residents aboard live and subversive activities by Jo Chong Rhun, a pro-Pyongyang Korean residents' organization in Japan, expanded at first hand.

Therefore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and analyze the consciousness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secur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ased on public opinion survey by questionnaires. Respondents were selected at random among the Jejuans in Japan, all of them live in Tokyo or Osaka.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asked: (1) their views on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2) cognizance of possibility of a commitment to war by North Korea; (3) Knowledge about the communist society of North Korea; (4) their views on the Japan.

It is very hopeful that respondents in general had a relatively realistic point of view on the North Korea, but it's worth consideration in their view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t.

To summarize findings briefly, they are as follows:

(1) In their view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Korean peoples' heart's desire, most of them pointed out that the impediment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 North Korea communist group (32.3%) and dynamic relationship of powerful countries (26.9%), that is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Russia and etc.;

(2) 66.9% of them showed their support to the unification policy of Republic of Korea;

(3) Respondents tend to overlook the important role of U.S. troops in Korea that restrain a new aggressive action by North Korea;

(4) Almost every respondents hope to resume the stalemated inter-Korean dialogue but it is expressed as a serious problem that 34.6% of them thought Republic of Korea should be accept even a part of the North Korean proposal for a resumption of the dialogue;

(5) 90.8% of respondents recognize the dangerous possibility of a commitment to war by North Korea;

(6) Understanding the real aspects of North Korean society, 84.1% of them depend upon Japanese Mass Com. as the main source of knowledge;

(7) The number of respondents regard the focus of the Japa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in its economic growth;

(8) In the light of national security in Korea, their reliability on Japan seems to be very low;

(9) At the mention of these opinion related to a standard of education, the higher they educated the more they are critical and negative in the actual—in the unification policy of Korea, the future prospect about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their life in Japan;

(10) In connection to generation, the old generation has a proper consciousness of national unification & security than new generation does. And as generations go by, this consciousness tends to be weaken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appraise public relation about unification policy of Republic of Korea and to consider an epoch-making counterplan in order to realize our effort toward unification in Korean residents' society in Japan.

But above all there's a matter calling for prior settlement, that is, as we had seen from their answer of questionnaire, the betterment of legal posi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y doing in that way, they can maintain their dignity as Korean and propel the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y of Korean, that is supreme task of their fatherland, with patriotism.